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4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18일 (음력 6월 6일) 수요일

## 광주시의회-5개 구의회 원구성 민주당 독식

### 광역·기초의회 통틀어 원내 지도부 34명 중 32명 인선...야당 단1명 뿐

#### “초록은 동색, 비판·견제 기능 약화 우려...시민단체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광주지역 광역·기초의회 원구성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해 일당 독점에 따른 의회 본연의 비판·견제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따르면 광역·기초의회 통틀어 신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는 모두 34명에 이른다. 이 중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인선이 완료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의회 파행으로 연가해 각각 18일과 23일 선출될 예정이다.

선임이 완료된 32명 중 민주당이 31명에 이르고, 나머지 1명만 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 5인의 홍기철 의원이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을 겸한 것이 전부다.

광역 23명, 5개 구의회 68명 등 전체 시·구의원 91명 가운데 야당 소속이 14명에 이르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3명, 여성이 9명(28.1%)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6명의 의장 중 여성은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이 유일하다. 서구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모두 남성의원들이 독차지했다.

의회별로는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장에 김동찬, 1·2 부의장에 장재성·임미란 의원이

이 선출됐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김익주, 환경복지위원회에는 박미정, 교육문화위원회에는 김학실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동구의회는 의장 박승민 부의장 조승민 운영위원장 홍기철 기획총무위원장 정미용 사회도시위원장 전영원 의원으로 진용을 짚고, 서구의회는 강기석 의장에 김태영 부의장, 김형선 운영위원장,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이, 남구의회는 조기주 의장에 박희을 부의장 서인석 운영위원장,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이 포진했다.

북구의회는 고점례 의장에 주순일 부의장까지 여성의원이 의장단을 장악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에 김건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정철, 경제복지위원회에 최용환, 도시보전위원회에 기대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광산구의회는 배홍석 의장과 김은단 부의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장 공병철, 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민, 산업도시위원장 강장원 의원이 상임위를 이끌게 됐다.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지면 시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의장단 구성부터 민주당 일당 독식이 현실화돼 의회 본연의 역할론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째짜미 의정활동을 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광주시의회에서 뒤떨어졌던 일당 독점에 따른 지리 나눠먹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패권 정치와 구태 타파와 함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순환제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죄송합니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 23명이 17일 제8대 의회 첫 임시회 5차 본회의 개최 직후 “지난주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단적으로 머리를 숙여 시민들께 사과하고 있다.



###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질투된 게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서 의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하에 게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게파가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면서도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 놓지 않은 한 가닥 희망이 자애권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러한 실망과 지탄, 희망, 걱정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당을 비로 세우고 한국 정치를 비로 세우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 = 뉴스시스



## 경찰, 고3 시험지 유출 사립고교 압수수색

### 유출 경위·돈 거래 정황 확인 방침

경찰이 고교 3학년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광주 모 고등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오전 서구 모 사립고등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행정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시험지를 복사해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한 이 학교 행정실장 A(58) 씨와 학부모 B(52·여)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시험지

유출 경위와 돈 거래 정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가 편집된 예상문제집 형태로 B 씨의 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압수물을 분석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와 통신내역도 분석해 시험지 유출 대가로 A·B 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A·B 씨간 금품 거래의



혹과 학교 관계자 개인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제8대 고흥군의회 개원

##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기움에는

##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